

서 평

미국학 연구방법의 새로운 방향

정 상 준

Alan Trachtenberg, *The Incorporation of America: Culture and Society in the Gilded Age*,
(New York: Hill and Wang, 1982).

간략하게 미국학을 규정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문화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미국학은 무엇보다도 “미국인은 누구인가?” 또는 “미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해 보려는 학제간 연구이다. 1960년대 중반까지의 미국학을 “지성사적 종합”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이 시기의 미국학 연구자들은 문화를 어떤 집단이 준용하는 집단적 행동의 상상적인 표현이며 독자적인 특성을 지닌 하나의 총체적이며 유기적인 패턴으로 파악했다. 이 시기의 학자들은 미국에 대해 몇 가지 전체를 공유했다. 즉, 미국적인 정신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것은 거의 동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론적으로 미국의 정신은 어떠한 미국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뛰어난 사상가나 예술가들에게서 가장 심오하게 드러난다고 본다. 따라서 소위 고급문학과 그 속에 담겨 있는 사상이 미국학에서 일종의 특권적인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통합된 전체로서의 미국 문화에 대한 믿음은 1960년대 후반에 이르면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게 된다. 합의가 아니라 분열과 갈등이 미국 문화와 사회의 특징으로 여겨졌고, 문화의 창구로서의 문학의 특권적인 지위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지적·예술적 표현의 기반을 이루는 사회구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사회현실에 기반을 둔 문화 분석의 도구는 문화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접근 방법, 특히 사회학과 인류학적인 접근 방식에서 나왔다. 또한 미국 문화를 통합적인 단일체로 여기지 않고 다양한 부분으로 이루어진 복합체로 여기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수 민족 연구, 흑인 연구, 여성학, 대중문화 연구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다양성과 다원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1980년대와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은 정치적으로 좌파의 성향을 보이면서 문화적 규범의 지배, 독점, 그리고 문화적 패권에 대한 이념적 의문을 제기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원주의나 다양성을 찬미하는 대신 사회와 정치의 갈등구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민족, 인종, 성, 계층 등을 중심으로 사회 현실과 구조에 기반을 둔 문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앨런 트락텐버그의 『미국의 합병』은 이러한 최근의 미국학 연구방법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저서라고 할 수 있다. 트락텐버그가 『미국의 합병』에서 취급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그 부제 「금박을 입힌 시대의 문화와 사회」에서 암시되듯이 문화와 사회, 정신과 세계사이의 관계이다. 트락텐버그는 문화라는 개념을 대체로 인류학적 의미로 사용하며, 특정 소수 집단이나 엘리트 집단의 행위와 발언보다는 “사회 전체의 생활 방식”(9쪽)에 대해 거론한다. 그는 남북 전쟁이후 삼십 년간 미국 사회 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미국 사회의 문화, 즉 “일상 생활의 형태와 짜임새, 미국인의 사고”(8쪽)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보이려한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그 시대의 문화적 인식에서 가장 명백한 가시적 변화는 미국 자체에 대한 미국인들의 개념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트락텐버그는 이 시기에 사회 조직이 재구성됨으로써 “미국”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논쟁이 야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논의의 쟁점은 미국이 “공유된 문화적 가치와 경험으로 결합된 체제”인 “국민의 국가”인가, 아니면 “사회의 보편적 이익보다는 특정 계급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봉사하는 통치 기구”인 “정치적 국가”(179쪽)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트락텐버그는 합병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여 이 저서를 구성한다. 합병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트락텐버그가 의미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의 산업 조직과 사업 조직” 뿐만 아니라 문화적 인식에서 나타난 “보다 포괄적인 변화의 패턴”(4쪽)이다. 그는 경제적,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합병보다는 문화적 과정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대기적 서술보다는 주제에 따른 접근 방식을 택한다. 그는 그 시대의 중요한 주제, 즉 서부로의 확장, 기계화, 자본과 노동, 도시화, 정치, 점잖은 문화의 발생 등의 주제를 통하여 미국의 의미에 대한 논쟁을 추적한다. 각각의 장(章)에서 트락텐버그는 우선 대중 문학이나 고급 문학, 역사 저술, 대중 연설, 건축, 회화, 그리고 다른 문화적 산물을 콜라주 방식으로 인용함으로써 일련의 이미지들이 사회적으로 이상화되거나 신화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런 다음 그는 한 주제의 이상화된 형태에 제도적 변화를 병치하고 그들 사이의 갈등을 조명한다.

트락텐버그는 헨리 내쉬 스미스 Henry Nash Smith가 『처녀지 *The Virgin Land*』(1950)를 끝낸 부분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그는 스미스가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사용한 “비어 있는” “처녀지”라는 용어를 인용 부호 안에 넣음으로써 서부에 대한 스미스의 시각을 반어적으로 제시한다. 미국인의 국민성에 관해 탁월한 통찰력을 보인 역사가 프레드릭 잭슨 터너 Frederick Jackson Turner의 프런티어 이론 frontier thesis을 분석하면서 스미스가 터너의 글이 상징적, 신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과 문명의 상반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한 반면, 트락텐버그는 터너의 이론을 사회적

상황에 의거하여 파악하며 그의 이론이 당대 정치와 문화의 요구에 이바지했다고 주장한다. 트락텐버그에 의하면 미국인의 마음에 서부는 상징이자 물질적 자원으로 존재했다. 자원으로서는 서부는 문자 그대로 폭력적 행위를 통해 인디언들에게서 탈취한 땅으로서 미국의 경제 체제에 합병되었다. 상징으로서 서부는 터너의 프런티어 이론에 합병되었으며 그것은 역센 개인주의, 창의적인 재주 등이 미국인의 일반적인 특성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지속시키는데 공헌했다. 트락텐버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상징은 합병된 사회가 부과하는 도전을 타개할 수 있도록 미국인들을 정신적으로 무장하는데 필요한 것이었다.

서부와 마찬가지로 기계도 상충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많은 미국인들은 한편으로 시민적 덕성과 계몽이라는 공화주의의 이상을 확산시키는데 기계의 잠재력을 믿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계는 빈곤, 노동자의 지위 하락, 열악한 산업 조건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졌다. 트락텐버그는 토머스 에디슨의 공적(公的)인 이미지에서 사회적 사건의 저변에 놓인 논리와 모순되는 허식을 발견한다.

서부와 기계에 대한 논의에서 트락텐버그는 주로 합병의 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의 의미에 대한 논쟁의 함축성만을 지적하는 반면, 자본과 노동간의 새로운 관계, 메트로폴리스, 정치, 문학적 사실주의, 백색 도시 White City를 다루고 있는 장에서는 그러한 논쟁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노동자들에게 미국의 합병이란 용어 자체가 심각하게 모순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국가로서 미국은 인간 유대의 개념에 입각하고 있지만, 합병이란 불평등에 기초한 통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동자와 자본가 양자의 인식에 있어서의 갈등은 일련의 격렬한 대결을 통하여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새로운 메트로폴리스에서 트락텐버그는 초기의 청교도들의 이상이었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의 이미지를 거의 발견할 수 없으며 이 도시들에서 공통적인 것은 노동 계급의 공동 문화를 근절하려는 시도였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시도를 소설과 사회 과학, 정치 논평 등의 담론에 있어서 뿐 아니라 도시의 설계, 공원의 조성, 빌딩과 백화점의 건축 양식, 광고에서 찾아낸다.

점잖은 문화 genteel culture의 전통에 속하는 사람들은 미국사회의 변화에 무중력감이나 단절감을 느끼면서 고상한 의미의 문화를 통하여 통합성을 회복하려고 시도했다. 그들은 문화 강습회와 도서관, 미술관을 통하여 해결점을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계층에 기반을 둔 그들의 문화 개념이 정치로 전환되었을 때 그들의 논리는 대중 정치 체계의 논리와 다름이 없었다고 트락텐버그는 주장한다. 양자의 경우에서 모두 정치와 재계는 서로에게 봉사했다. 트락텐버그에 의하면 “진정한 미국”과 “민중의 감정”을 대변했던 인민당과 Populists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계급적 이익의 추구에 충실한 “정치적 국가”라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문학적 사실주의는 문화적 통합성을 추구하는 또 다른 시도였다. 윌리엄 딘 하월즈 William Dean Howells는 실제의 삶과 일치하는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픽션의 영역에 민주주의를 도입 확장하여 미국 생활의 총체를 끌어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가 점잖은 문화를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월즈의 사실주의는 실제로는 점잖은 문화의 관습이 그의 통찰과 발언을 검열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그의 의도와는 반대로 그의 사실주의는 합병된 사회의 지배적 문화 질서를 강화하는데 공헌했다. 이런 점에서 트락텐버그는 “대체로 사실주의는 자율적이고 자연적인 인간 공동체에 대한 옛 미국의 신조가 서글픈 환상임을 보여주었다”(202쪽)고 기술한다. 또한 1893년의 시카고 세계 박람회는 미국에서 “고급문화라는 단어와 법인 세력”(209쪽)의 승리의 정점이었다. 시카고의 별명이 된 백색 도시는 미국 사회의 다양성에 직면하여 통일성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것은 “한 민족, 한 문화, 완전한 사회의 실현”(230쪽)처럼 보였다. 그것은 노동자, 농부, 이주자, 흑인, 여성들의 서로 분열된 저항의 목소리에 대해 정치계, 재계, 문화계의 엘리트들이 승리하고 미국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논의를 해결한 듯이 보였다. 트락텐버그는 백색 도시를 1894년에 발생한 풀맨 파업과 병치시킴으로써 이러한 환상을 해체한다.

서부 개척에서 백색 도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제시하면서 트락텐버그는 변증법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모순된 세력간의 변증법적 상호 작용이 갈등의 해소에 이른다고 제시하지 않는다. 프레드릭 로 올스테드 Frederick Law Olmsted의 공원이나 하월즈의 사실주의, 백색의 도시에서 예시되듯이 점잖은 문화를 합병된 사회와 조화시키려는 시도는 모순을 극복하지 못했다. 오히려 점잖은 문화는 법인 체제에 흡수되어 그 체제를 강화했다고 트락텐버그는 주장한다. 인민당파와 노동 계급 문화의 저항은 비록 일시적으로는 합병에 반대하는 항의로서 그 기능을 발휘했지만,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법인 체제의 이상과 상호부조 및 자치주의라는 인민당파의 이상 사이에서 접합점을 찾지 못했다. 저항 문화는 지배 문화에 흡수되거나 제거될 뿐이었다. 따라서 트락텐버그의 관점에서 볼 때 변증법적 과정은 진보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퇴보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트락텐버그는 그가 『브루클린 브리지 Brooklyn Bridge』(1965)에서 채택했던 변증법적 과정을 통한 진보 개념을 단념하고, 인간의 역사가 야만 상태에서 인도주의로 이르는 진보가 아니라 “새총에서 수소 폭탄에 이르는 것”이라고 파악한 아도르노 Theodor W. Adorno의 시각을 수용하는 듯이 보인다.

아마도 1960년대 후반의 경험으로 야기되었을 이러한 문화적 전망의 변화로 인해 트락텐버그는 그 이전에 미국의 역사 기술에서 배제되었던 소수 집단, 즉 인종적, 민족적, 성적, 사회적 소수 집단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진보의 실제적 성취를 부정하고 당대의 모순되는 세력간의 충돌과 그 의미를 과장하는 경향

을 보인다. 예를 들어 대도시의 부정적 발달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는 땅속에 묻힌 가스관, 수도관, 전선, 각종 배관을 “기계의 가정 침입”(130쪽)이라고 제시한다. 그리고 강력한 저항 세력을 추구한 나머지 역사의 음모설을 옹호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그가 제시하는 금박 입힌 시대의 전반적인 문화상은 희망이 없는 비관적인 것인데, 이는 당대 많은 미국인들의 믿음과는 상반된 것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 트락텐버그의 관점에서는 환상에 불과한 것이 당대의 많은 미국인들에게는 희망의 증거로 여겨졌을 수 있다. 실제로 역사가 부어스틴 Daniel Boorstin은 『미국인 The American』의 제 3권(1973)에서 트락텐버그와는 상반되는 당시의 미국사회의 모습을 제시한다. 그러나 트락텐버그의 저서에서는 어떠한 해석이 더욱 정확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다.

이처럼 그가 포괄적인 사회상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1950년대부터 60년대 중반까지 미국학을 주도하던 신화 및 상징 학파의 유산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트락텐버그가 그의 문화 인식의 바탕을 실제 사회사에 두려고 한다는 점에서 스미스나 레오 막스 Leo Marx와 같은 그의 스승들과 다른 접근법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아직 사회와 문화의 총체성을 포착하기 위한 방법론을 정립시키지 못했다. 비록 그가 대체로 인류학적 문화 개념을 적용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실제로 다양한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의 형태와 짜임새를 그들 자신의 관점과 경험에서 전달하지 않는다. 여러 경우에 그는 뚜렷한 견해를 가진 소수의 발언을 통해서 일상 생활의 짜임새를 제공할 뿐이다. 예를 들자면 트락텐버그는 4장에서 상업 지역과 거주 지역을 분리하고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도시를 관리하려는 중산층들의 시도에 대해 분석하면서 움스테드가 구상한 공원의 요법적 기능과 통합된 성격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누구의 일상인지를 명시하지 않고 합병이 일상 생활의 모든 영역에 퍼져있다는 광범위한 결론으로 즉시 비약한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트락텐버그가 노동자의 문화에 관해 언급할 때 노동자의 문화는 주로 노동운동의 대변인들의 연설을 종합한 것이다. 요컨대, 금박 입힌 시대의 문화에 대한 그의 해석은 “밑에서 본 from bottom up” 사회상을 결여하고 있다. 트락텐버그처럼 건설적이고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그러한 연구에 대한 비평보다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문화사를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역사적 실체 - 만약 그러한 실체가 존재한다면 - 의 총체성에 근접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사회사와 문화 연구를 통합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트락텐버그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은 듯이 보인다.

정상준, 서울대학교 영문과 교수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영문과

TEL : 880-6112(O), 872-4390(H)